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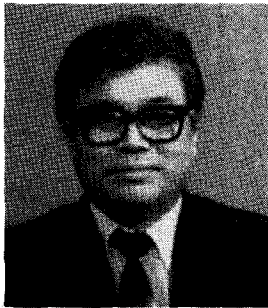
고혈압증과 함께 당뇨병의 발생빈도가 높아가고 있다. 소위 문화병이라고 해서 좀 잘 살게 되니까 이런 못된 병이 판을 쳐서 골치가 아프다.

특히 당뇨병은 눈에 여러가지 합병증을 생기게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뇨병성 망막증이라 해서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을 못쓰게 만든다. 또 눈알맹이 한가운데에 맑고 끈끈한, 유리녹은 물 같은 것, 이것을 초자체라 하는데 (사진기의

당뇨병성 눈합병증, 녹내장

가운데 공간에 해당하는 부위에 차있음) 이 초자체내에 피가 고이게 하고 또 이곳에 나무가지처럼 무엇이 자라나오는 증식성망막염이란 병이 생겨 실명도 한다. 또 당뇨병성 백내장이 생긴다.



김재명

〈경희의료원·안과〉

문화병의 하나인 당뇨병

백내장은 사람나이 65세 정도면 85%가 조금씩은 생기는 것인데 젊은이에게서도 당뇨병때는 이 백내장이 생기고 또 그 진행도 상당히 빨라서 금방 눈앞이 안보이게 된다. 또 우리 눈속 즉 애기동자(동공이라함) 바로 뒤의 수정체(이것에 백태가 끼면 백내장이

됨)에 이상이 생겨서 근시가 발생한다. 돋보기를 써야 바느질을 꿰던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안경없이 가까운 곳이 뚜렷이 보인다고 좋아하는데 이것은 큰일이다. 당뇨병이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또 이 수정체의 고장 때문에 물체가 잘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조절쇠약이란 증상도 따라온다.

그외에 우리눈의 갈색부분(서양사람은 하늘색인 파란색)에 쓸데없는 핏줄이 자라나서 조리개인 이 갈색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할뿐 아니라 이곳에 염증도 일으킨다. 그리고 시신경염이라 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온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신경인 시신경에 염증도 일으키고 안근마비라고 해서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게 하는 근육을 마비시켜 세상모든 물체가 둘로 보이게도 한다.

위에 말한 것들 때문에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무서운 합병증, 녹내장

녹내장이란 눈병중 제일 고약한 것 중의 하나로 한번 잘못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원상복귀가 안되고 그대로 버려두면 아금아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멀게되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이다.

눈에는 일정한 압력이 있다. 눈을 눌러보면 공을 누를 때 처럼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것이 눈속의 압력때문이다.(이를 안압(眼壓)이라함) 그런데 이 압력이 보통보다 높아져, 심장으로부터 오는 핏줄의 압력보다 높아지면 눈에는 피를 보낼 수 없으니 눈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즉 눈속 맨 뒷쪽에 있는 망막을 보게하는 신경세포등 중

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곳이 죽게되면 다시 살릴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눈병이란 것이다.

녹내장은 증상이 아주심한 것이 드물고 아주흔한 녹내장은 처음엔 별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그냥 지내는 수가 많다. 그러니 **눈은 차츰차츰 망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많이 고장이 났을때야 증상, 즉 두통, 시력감퇴, 구역질 및 눈이 빨개지면서 구멍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이는 범위(이를 시야(視野)라함)가 좁아지다가 나중에 실명하게 된다.**

두통이 나니깐 감기나 몸살로 오인하기 쉽고 구역질이 나니까 배탈이라고 생각하고 내과로 뛰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초기자각증상 거의 없어

이 녹내장은 40대 이후 신경이 안정돼있지않은 사람, 유전적 소인이 있는 이, 고혈압, 빈혈,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써야 될 사람 등에서 잘생기는데 이런 것들 보다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잘 생긴다**

녹내장은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병일 경우에는 약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나 당뇨병이 심하게 되면 수술해도 상처가 낫지 않으므로 수술도 못하고 눈은 자꾸 망가지고 하니까 당뇨병의 조절을 잘해야 한다.

대개 혈당이 공복시 150정도면 수술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할 것은 없지만 아뭏튼 당뇨병환자는 한달에 한번꼴로 안과에 찾아가서 위에 말한 여러가지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눈병에 대한 검사를 해야하고 특히 안압검사를 꼭 해야 한다. ☺